

광산구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박차

지난해 민간 어린이집 11곳 전환을 공공보육이용률 40% 목표를 한 곳당 최대 1억7000만원 지원

광주 광산구가 학부모의 공교육 선호 의견에 따라 관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학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에 따라 지난해 부영어린이집과 토트어린이집 등 11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공공보육 이용률을 28%로 높였다.

또 올해에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및 입주자대표회의 어린이집을 상대로 국·공립 전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산구의 경우 현재 관내 1만1800여명의 어린이 중 3200여명만 4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8800여명은 303개소의 민간, 가정, 법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3월 어린이집의 입학 시기가 되면 학부모들 사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요



국공립으로 전환된 토트어린이집.

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2018년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신규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신규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보육수요를 고려한 지역 균형배치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1개소당 리모델링비용으로 1억 1000만원과 기자재비용 1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도 공동이용시설 개선비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1개소당 최대 1억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내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직전년도 정월총소득이 40% 미만이거나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광주 광산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북한지역 도시 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 정책 과제 발굴과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결정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11월 사무국에 신청하고, 12월 규약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고시하는 등 모든 가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광산구는 정부의 중전선언 추진에 맞춰 협의회 등과 연계한 자체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광산구는 앞서 2019년 4월 광주송정역과 도라산역을 오가는 '광산통일열차'를 운행하고, <사진> 지난해 4월에는 '4·27 판문점 선언 3돌 기념' 통일 걷기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소됐던 광산통일열차 운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공무원 임용권

구청장서 구의장으로

의회 정책 역량 강화 기대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3일부터 광산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서 구의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소속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책지원관도 올해는 4명, 2023년부터는 8명(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의회의 정책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관련 직제를 개편하고, 기존 20명이었던 정원으로 26명으로 늘렸다.

광산구의회는 특히 기존 직원들에게 의회 잔류와 구청 복귀 여부를 파악한 결과, 구청복귀를 희망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7급 직원 2명을 각각 6급으로 자체 승진 인사하고 잔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형준 광산구의회 의사국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구의회 소속 직원은 의장이 임용권을 갖게 됐다"며 "향후에는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집행부와 1대1 인사 교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조만간 집행부와 인사교류, 채용 및 인력지원, 복리후생 증진, 교육훈련, 근무관리, 보수지급 등의 세밀한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한파 녹인 '고사리손 온정'



광산구 신창동 어린이들

지난해부터 모은 저금통 기부

광주 광산구 신창동 어린이들이 '사랑의 저금통'을 기부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들은 신창동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내 신촌 원시인 그림책 마을의 어린이들.

'꼬마천사'들은 지난해 4월 신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부터 받은 저금통을 차곡차곡 채워 지난 5일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저금통을 전달했다. 고사리손들이 정성껏 모은 동전과 지폐는 총 20여만 원.

아이들이 전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신창동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연숙 신창동장은 "아이들이 한푼 두푼 아껴 모은 성금이라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건강 밥상' 사회서비스 톨모델 '주목'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반찬 제공

광주 광산구 '늘 행복한 건강밥상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힘으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회서비스의 톨모델이 되고 있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늘 행복 건강밥상'은 광산구 영구임대 '늘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 결실 중 하나다.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생활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반찬 제공' 서비스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이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광산구는 사회적협동조합, LH주택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SR IMPACT,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와 각 복지관 등과 함께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모델 구축에 나섰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공모 사업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됐다.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메뉴 개발, 식품 위생 등 교육을 제공, '마을 요리사' 거둬내기 위한 역량 강화 등도 지원했다.

이같은 성과로 광산구는 지난 연말 보건복지부의 202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평가 최우수상,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AI 활용 하수·강우 분석·예측

광주시는 "갑자기 쏟아 붓는 폭우에 대비해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 하수도를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경부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최종 선정된 후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사업내용, 과업범위 등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다.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 사업은 국비 26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79억원을 투입해 백운광장, 서서고, 신안교 주변 등 극락천과 서백천 수계를 중심으로 도시침수 대응 능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해 도시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침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스마트 기술을 연계해 도시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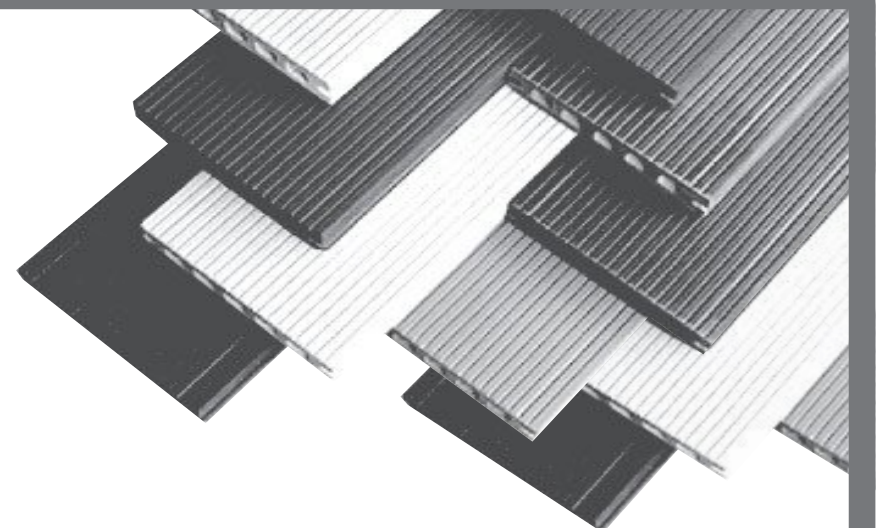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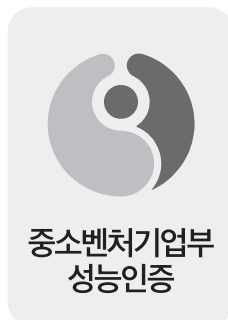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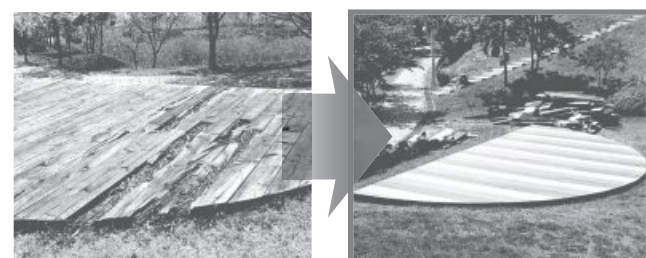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